

부부의 언어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 공유시간, 서비스, 인정, 선물, 신체접촉

한 경 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Scale Development for Measuring of the Couple's Languages

: Quality time, Acts of Service, Words of Affirmation,
Receiving Gifts, and Physical Touch

Kyeong-Mi Han[†]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cale for measuring the five languages of couples. A 50 item instrument was analyzed with responses from 100 persons(50 couples) dwelling in Kwangju.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Pearson's Correlation, Factor Analysis, and Cronbach' α test. Items were loaded five categories such as quality time, words of affirmation, receiving gift, acts of service and physical touch. The test is shown to hav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satisfactory content validity. The result proposed the 27 items constructed scale. (*Korean J Human Ecology* 1(2):1~11, 1998)

KEY WORDS : Quality time, Acts of Service, Words of Affirmation, Receiving Gifts, Physical Touch

1. 서론

남편과 부인은 人的자원과 物的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존속해간다. 부부가 성장한 배경이나 문화, 가

치관, 성격 등의 차이는 서로의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을 교환할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통용되는 규칙이 없다면, 주는 사람의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부의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5, Fax : 061-530-1329
E-Mail : kmhan@chonnam.chonnam.ac.kr

차이에 대한 이해 여부는 오해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시너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부부간에 자원교환을 통해서 남편과 부인 각자의 인적자원이 더 계발되고, 서로의 차이를 보완함으로써 두사람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적자원은 고정된 관계와 기존의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틀안에 갇혀 있을 때는 계발될 수 없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Foa(임정빈 외, 1998:197-8 재인용)는 자원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적 자원의 교환은 주는 사람의 것이 일반적으로 감소하지만, 대인적 자원은 주더라도 공급이 감소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인적자원은 더욱 많이 계발할수록 계속적 계발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부부사이에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배우자가 표현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주로 사용하고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을 상대 배우자가 느끼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제 1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가지의 언어에 대해 고찰하고, 부부가 자신의 제 1의 언어는 무엇이고,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제 1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가지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며, 결혼생활의 만족감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표현 수단과 남녀의 차이

의사소통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의사소통 중 불과 10%만이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30%는 내는 소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60%는 신체언어를 통해 전달된다(Covey, 1994:333). 친밀한 관계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몰입된 사랑과 상호헌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Spooner, 1982; Ramey, 1976). Feldman(1979)은 부부간의 친밀감은 1) 긴밀하고 친숙하며 애정적인 관계 2) 친근한 개인적 관계와 유사한 경험에서 오는 자상하고 깊은 이해 3) 성관계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Galvin, Brommel 1995:110에서 재인용)

인간관계에서 애정과 관심에 대한 의사소통 행동을 관계표현수단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모든 관계가 1) 시간 혹은 금전의 투자, 2) 표현 수단의 교환 3) 어느정도의 위험부담이라는 3요소를 포함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교환되는 표현수단은 애정적인 것이거나 경제적인 것일 수 있다(Villard 와 Whipple, 1976). 애정적 표현수단은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애정을 나누는 방법으로 미소짓거나, 포옹하고, 성교를 하고, 비밀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주체성을 서로 나누게 된다. 애정적인 표현수단은 직접적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행동이 바로 메시지가 되고,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는 보통 명백하고 쉽게 해석된다. 경제적 표현수단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 부탁을 들어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시간이나 물건을 같이 나누는 것 등을 뜻한다. 경제적 관계표현 수단의 메시지는 미소나 포옹, 애정어린 이야기 등으로 전달

되는 메시지만큼 직접적이지 않다. 비록 관계표현 수단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환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해석은 두 당사자가 행동의 의미에 동의했을 때만 일어난다. 두 가족 체계가 새로운 한 가족으로 합쳐질 때 오해가 더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성장한 가족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든 뜻으로 이따금씩 선물을 주는데, 만일 이런 일이 없었던 가정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에 이 새로운 전통을 기쁘게 여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특별하지도 않는 날에 선물을 사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아내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선물을 받는 부인이 이에 상응하는 감사표시를 하지 않아 남편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애정을 나누는데 공통된 규칙이 없다면 가족원들은 메시지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여지도록 의사소통형태에 대해 협상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에 애정을 교환하는 행동이 비슷하지 않다면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고, 한 배우자가 투자한 것과 얻은 것에 대한 공평성 지각이 낮았다(이재연과 최영희, 1993:112-114 재인용).

남성과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 어떤 일에 대한 적응방식에서 차이있게 구별되어져 여러 가지 면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고 많은 문헌들은 보고한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부인들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것을 좋아하는데, 남편들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며, 대화할 때 부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남편들은 자신이 추리하고 판단한 것을 이야기한다. 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부드러운 감정이 오가는 정감있는 대화이지만, 남편들은 사실이나 지식, 정보를 주는 이

야기를 좋아한다. 또한 부인들은 개인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편들은 좀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려 한다. 부인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것에 관심을 가지나 남편들은 대개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며, 철학적인 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인 측면을 볼 때 부인들은 주로 피상적인 목표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편들은 목표 자체보다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부인들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반면에, 남편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일을 통해 자기를 성취하려고 한다. 또한 남편들은 가정에 관한 일은 자주 망각하거나 지나쳐 버리는데, 부인들은 사소한 일도 잊지 않으며, 남편들은 요점만을 기억하고 요점을 말하는 반면에 부인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남성적인 표현방식을 익히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것이고, 나약한 것이라 생각하여 표현하지 않는데 익숙하게 되며 메시지의 표현능력이 부인들보다 떨어진다.

이러한 남편과 부인의 차이는 대부분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인데,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비논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발산할 수 있고,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은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이다.

Gilbert(1993:50)는 남성이 느끼는 우울감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여성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은 자신에 대해서

과장되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남성이 여성의 말을 듣고, 여성의 요구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Tannen(1990)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과의 대화에서 상하 위계적으로 대화를 지배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은 대화를 상호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지지하며, 합의에 도달하는 친밀감을 갖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부부의 5가지 언어

Chapman(1997)이 제시한 5가지 언어에 근거하여 관련문헌들을 고찰 하였다. 부부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공유시간과 가사일과 배우자에 대한 서비스, 배우자를 지지하거나 칭찬해주는 인정하는 말, 선물, 신체접촉 등이다.

1) 공유시간

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Orthner(1975)는 배우자와 함께한 여가시간은 부부만족도와 正的인 관련이 있으며, 관련성의 강도는 상호작용 정도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Snyder(1979)는 배우자와 함께한 여가시간의 質과 量은 전체적인 부부만족도를 높게 예측하는 요인이라 하였고, Varga(1972)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의 양이 이혼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가별로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否的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Hill(1988)도 배우자와의 공동 여가시간과 결혼 안정성은 正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다.

여기서 함께하는 공유시간이란 배우자와 함께하는 활동의 여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의미가 아

니라 연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시간이란 거리상의 밀접함이나, 상대에는 관심없이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만일 배우자의 제일의 언어가 '공유시간'이라면 함께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Chapman(1997)은 듣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 ②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음, ③상대방의 감정에 주의, ④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의, ⑤상대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기 등이다. 또한 그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매일 일어난 일 중 약 세가지 정도의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하고,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부인의 제1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임을 알고 여기에 맞추어간 남편의 예가 다음에 제시되었다.

트레이시는 어렸을 때 교향곡을 자주 들으면서 컸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부모와 함께 음악회에 갔다. 4년에 남편 내리는 음악회는 한 번도 강적이 없지만 나디오호 컨트리음악을 들었다. 그가 트레이시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인생에 한 번도 음악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그녀와 음악회에 가고, 그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몇 년 후 트레이시의 제1의 사냥의 언어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알았다.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에게 사냥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고 역의를 가지고 참석했다. 여자로서 교향

곡을 한두곡 증기기는 했지만 그 보다는 트레이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2) 서비스(Acts of Service)

서비스는 봉사나 섬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섬김은 남에게 능력을 준다(enable)는 뜻을 가지며, 이것은 "to make better"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섬김은 라틴어 어원을 볼 때 유익하게 하다(edify)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다(Norman Wright, 1983). 다음은 부인의 가정일에 대한 헌신과 서비스를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지각하는 남편의 예이다.

나는 아내가 나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정주부지요. 요리도 물론 잘하고요. 내 옷도 잘 빨아서 다건질까지 다 해놓지요. 아이들에게는 나무랄 데 없이 잘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Chapman, 1997)

부부가 서비스라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이분적인 개념이나 고정관념은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연구들(Cohen, 1993: 17; Lewis, 1986; Pleck, 1985, 1987; Gilbert, 1993: 65; Malcolm, 1991)을 보면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서 전통적인 생계 부양자나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점차 역할을 공유하는 결혼을 지향하거나, 부모됨의 양육차원이나 가정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colm(1991)은 아버지의 약 1/3이 가족과의 시간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직업이나, 승진, 이사를 거부하였고, 25%의 남성은 가족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근무시간과 봉급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였다.

Gilbert(1993: 91)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직업

과 가정일에 대한 책임에 균형이 필요한데, 공평이론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의 가사일 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낄 때 역할균형의 만족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일의 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낀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만족이 높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였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제공만 할 뿐 교환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과 불만의 소지가 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서비스라면 그동안 성장한 배경에 따른 습관이나 역할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하여 역할을 융통성 있게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3) 인정하는 말

인정한다는 것은 거부와 무시의 두가지 대안적인 반응과 대조를 이룬다. 인정반응이 상대방의 수용을 의미하는 반면에 거부반응은 상대방이 잘못되었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시반응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거나 대화에서 제외시킬 때 나타난다. Barbour와 Goldberg(1974)는 인정행동에 대한 Sieberg(1973)의 연구를 요약하여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보다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인정받는 것이다 ②독백보다는 대화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수용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인정하는 것이다 ④일반적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대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인정하는 것이다(이재연 외, 1986: 125-129).

Mark Twain은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두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칭찬하는 것은 배우자를 인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다. 인정하는 말에는 칭찬이외에도 격려하는 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상대의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것, 무리하게 요구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랑은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써 정중한 요청은 배우자가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지만, 무리한 요구는 그런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남성들은 전형적으로 여성에게서 지지와 인정을 기대한다(Pleck, 1981). 다음은 부인으로부터의 인정하는 말이 제1의 언어인 남편의 예이다.

“아내는 훌륭한 주부이고, 애들에게는 좋은 어머니죠. 하지만 아내는 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아요”(Chapman, 1997).

Bernard(1974: Gilbert, 1993: 89 재인용)는 부부간에 서로 지지, 인정해주고, 배우자에 대해 민감성을 갖는 것은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배우자를 지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경청하고, 보호해주는 마음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에 서로 주고 받는 대인적 과정과 서로 힘을 부여해주고 힘이 되는 관계로서 사회적인 지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선물

선물은 선물을 받을 사람을 배려하고 숙고한 뒤에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기시에 배우자 자신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부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편이 꽃을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의 제 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마음이나 정성이 담긴 어떤 선물이라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주는 선물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비판적이거나 기꺼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경우 선물은 배우자의 제 1의 언어가 아닌 것이다. 다음은 부인의 제 1의 언어가 선물인 것을 안 남편이 태도가 변하고 이 때문에 삶이 바뀐 부인의 예이다.

저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텅비어 있었어요.. 그는 결혼한 후부터 나를 예사코이 대했고, 나는 집안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뵈당하고 혹사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남편에게 내 감정상태를 이야기 하니 그는 어이없어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장미향수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어디서 샀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에게 장미를 주었다는 것이었지요....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한 번도 꽃을 사오지 않고, 카드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이건 돈만 낭비하는 것이야’ 했거든요.... (Chapman, 1997)

5) 신체 접촉

우리의 신체는 대화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지고, 잡고,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는 행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애슬리 몬터규(McGinnis, 1982, 지상우와 한정혜 역, 1994: 81)는 인간의 피부는 가장 강력한 감각기관으로 피부의 50만개가 넘는 감각섬유가 척수를 통하여 두뇌로 이어져 감각체계로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주장하

였다. 인간은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은 상실해도 피부의 기능을 잃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Chapin은 소아과 병동에 있는 거의 접촉이 없던 아이들을 여성들에게 데려가서 안고 얼르고 가볍게 토닥거리주게 한 결과 사망율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실험결과 아동들이 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지 못했을 때 참을성이 없고 공격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상우 외, 1994: 83 재인용).

신체접촉은 결혼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거나, 포옹,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에 신체접촉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제1의 언어가 신체접촉인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관계가 악화되는데 결정적일 수 있다.

부부사이에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배우자가 표현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주로 사용하고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을 상대 배우자가 느끼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제1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가지의 언어에 대해 고찰하고, 부부가 자신의 제일의 언어는 무엇이고,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제1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보고자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척도구성

본 연구의 5가지 언어 척도는 Gary Chapman (1997)의 책 「The Five Love Languages」을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5영역 각각에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을 만들었는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만들었다. 점수범위는 50점에서 250점까지이다. 질문지 문항은 5영역이 서로 혼합되도록 배열하였고, 몇 문항은 반대방향으로 물어보았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남편과 부인이다. 조사는 1998년 5월에 실시하였고, 총 120부(60쌍) 질문지를 배포하여 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100부(50쌍)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원이 대상자인 남편과 부인을 직접 대면하고 응답하게 한 후에 응답한 질문지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PC의 SAS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분석에 적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들의 변별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의 적률상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5가지 언어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영역으로 묶여지는 문항들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 척도의 문항수를 단순하게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성된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를 계산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개별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관계

첫단계로 척도와 개별 문항간의 상관관계수가 표1에 제시되었다. 총 50문항 중에서 3문항(6번, 12번, 34번)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다. Kerlinger(고흥화와 김현수, 백영승, 1989)는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상관관계수가 .30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20이상인 경우는 후속연구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시킬 때 위에서 말한 3문항은 상관관계수가 .20이하이므로 우선 제외되었다. 나머지 47문항중 1번과 5번, 24번, 39번, 45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30이상이며, 이 5문항도 .20이상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47개 문항은 모두 유용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위척도의 구성

척도구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추출된 47문항이 문항을 만들 때 5영역에 의도한대로 포함되며, 어떤 유형으로 묶는지를 파악하고, 척도의 문항을 보다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회전방법은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그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Varimax를 적용하였다. Chapman(1997)이 제시한 5가지 언어영역에 근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47문항에 대한 요인수를 5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느 요인에도 특히 높은 부하치를 가지지 않는 문항이나 질문문항의 내용과 요인의 이름이 적합하지 않게 묶인 문항은 제외시켰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1-5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00이상이고 각 요

인에 속한 문항들의 부하치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한요인에 높은 부하치를 갖는 문항이 다른 요인에서는 낮은 부하치를 보이는 것은 문항들의 변별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1번과 22번, 30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별력이 높은 편이다.

각 요인에 묶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요인 1은 공유시간이라 명명할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거나, 이상적인 배우자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 명랑해지고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선물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선물을 자주하거나 또 받기를 기대하고, 선물을 받을 때 배우자의 사랑을 느끼거나 선물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문항들이다. 요인 3은 인정하는 말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자주하고, 또 배우자로부터도 듣기를 원하거나, 실제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만족감을 느끼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4는 서비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특별한 날에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서비스(생일상차리기, 여행, 외식 등)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요인 5는 신체접촉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의 신체접촉에 높은 가치를 두고, 신체접촉을 할 때 보다 만족을 느끼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47문항에서 27문항이 추출되었다. 누락된 문항들은 다른 영역에도 다소 적용될 수 있는 문항이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묻는 내용이 아니어서 전달이 약간은 모호하게 된 문항들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최소의 문항으로

표 1. 사랑의 언어척도와 문항간의 상관관계

| 문 | 상관계수 |
|---|------|
| 1.나는 배우자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남편(아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25 |
| 2.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어느정도 그렇게하고 있다. | .45 |
| 3.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나는 가끔 배우자에게 선물을 한다. | .33 |
| 4.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며, 같은 이유로 배우자가 나에게 봉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 .47 |
| 5.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강한 성욕을 갖게 될 때가 많다. | .28 |
| *6.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14 |
| 7.이상적인 배우자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7 |
| 8.이상적인 배우자는 자주 선물을 줄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55 |
| 9.이상적인 배우자는 봉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0 |
| 10.배우자가 육체적 접촉을 해오면 내에 대한 비판이나 기분 나빴던 일도 거의 잊게되거나, 성적으로 만족을 느끼면 사랑의 그릇이 거의 다 채워졌다고 느낀다. | .56 |
| 11.연애시절(신혼시절)에 배우자는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자주해주었고, 나는 그런 배우자가 좋았다. | .62 |
| *12.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배우자가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아도 좀 섭섭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1 |
| 13.연애시절(신혼시절)에 배우자는 나에게 선물을 자주 주었고, 나는 선물을 받을 때는 남편(아내)의 사랑을 느꼈다. | .61 |
| 14.연애시절(신혼시절)에 배우자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봉사를 했으며, 그런 배우자에서 나는 사랑을 느꼈다. | .43 |
| 15.실제로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성적인 문제에 대해 배우자에게 요구하거나 의논하고 싶은 일이 많다. | .32 |
| 16.배우자가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자주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 .57 |
| *17.함께하는 시간이 적어도 큰 불만이 없다. | .30 |
| 18.선물을 받고 기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으며, 또한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 | .41 |
| 19.배우자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거나 다른 봉사를 해줄 때 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 .51 |
| 20.나는 배우자에게 육체적 접촉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또 자주 육체적접촉을 갖는다. | .51 |
| 21.내에 대한 배우자의 칭찬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으며, 내에 대한 비난이 정당한 것이라도 마음이 상한다. | .62 |
| 22.연애시절(신혼시절)에 배우자는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나는 그런 배우자가 좋았다. | .53 |
| *23.실용성이 없는 선물(꽃, 비싼 포장 같은 것들)에 돈을 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46 |
| 24.나는 내가 맡은 일(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편이다. | .21 |
| 25.이상적인 배우자는 육체적접촉을 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62 |
| 26.배우자가 나에게 지시하듯이 당연한 요구를 할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부탁하듯이 말할 때는 나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56 |
| 27.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는 나도 모르게 명랑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 .55 |
| *28.배우자가 선물받기를 매우 좋아해도 지나친 노력과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31 |
| 29.배우자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나혼자 일하는 것을 돕지 않으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 .37 |
| 30.연애시절(신혼시절)에 배우자는 육체적접촉을 자주했고 그럴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 .61 |
| 31.배우자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고싶어 그런 요구를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 .64 |
| 32.일상생활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 .58 |
| 33.배우자가 나의 정성들인 선물을 받고도 별다른 반응(칭찬이나 감사)을 보이지 않거나 정성껏 한 포장을 거칠게 찢으면 나는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 .53 |
| *34.퇴근을 했을 때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저녁준비가 되어있지 않아도 별로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는다. | .11 |
| 35.내가 성관계를 너무 밝힌다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 | .34 |
| 36.나는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자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기도 한다. | .48 |
| 37.대화중에 나의 감정이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줄 때 나는 남편(아내)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30 |
| 38.선물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배우자가 준 선물을 가끔 꺼내보고 호뭇해하기도 한다. | .58 |
| *39.배우자가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별로 섭섭하지 않다. | .27 |
| 40.성관계 외의 다른 시간에도 나는 신체접촉을 좋아하며 그럴 때 성적인 자극을 느낀다. | .57 |
| *41.배우자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이 싫지만 그 말이 만드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나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44 |
| 42.배우자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듣거나 내 말에 반응을 나타낼 때 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 .42 |
| 43.특별한 날에 배우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면 매우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 .42 |
| 44.나는 가끔 배우자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잔소리를 한다. | .47 |
| *45.성관계가 여러 주 동안 없어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26 |
| 46.이상적인 배우자는 인정하는 말을 잘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9 |
| 47.배우자나 내가 원하는 일(취미, 집에 꼭 필요한 일 등)을 함께 할 때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거나 테이트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 .54 |
| 48.나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잘하는 편이고, 때로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요구하기도 한다(이번 생일에는 뭐 줄까요? 같은 말들) | .53 |
| 49.특별한 날에 배우자가 특별한 일(생일상 차리기, 기념여행, 기념사진 촬영, 특별한 외식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0 |
| *50.나는 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인지 영화등에서 에로틱한 장면이 낯하도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는다. | .44 |

* : 부정적으로 물어본 문항으로 역점수처리

표 2. 사랑의 언어척도의 요인행렬표

| 문항 번호 | 요인1 공유 시간 | 요인2 선물 | 요인3 인정 하는말 | 요인4 서비스 | 요인5 신체 접촉 | Com mual ity |
|-----------|-----------------|-----------|------------------|------------|-----------------|--------------------|
| 2 | .45 | .36 | .12 | .06 | -.17 | .38 |
| 7 | .55 | .01 | .22 | .05 | .16 | .38 |
| 17 | .56 | .24 | .20 | .08 | -.22 | .38 |
| 22 | .43 | .38 | .26 | -.21 | .18 | .51 |
| 27 | .53 | .27 | .16 | .09 | .08 | .45 |
| 32 | .61 | .21 | .14 | .23 | .05 | .45 |
| 42 | .65 | .06 | .13 | .08 | -.12 | .46 |
| 3 | -.15 | .60 | .04 | .06 | .21 | .53 |
| 8 | .13 | .42 | .29 | .26 | .31 | .38 |
| 13 | .32 | .68 | .02 | .13 | .12 | .60 |
| 38 | .19 | .66 | -.01 | .20 | .20 | .55 |
| 48 | .07 | .63 | .04 | .29 | .18 | .52 |
| 1 | -.26 | . | .57 | .22 | .20 | .49 |
| 11 | .43 | .21 | .49 | .02 | .28 | .50 |
| 26 | .31 | .14 | .60 | .10 | .06 | .40 |
| 36 | -.10 | .45 | .56 | .06 | .00 | .38 |
| 41 | .27 | -.10 | .51 | .07 | .23 | .39 |
| 46 | .29 | .15 | .52 | -.02 | .07 | .39 |
| 29 | .12 | -.30 | .31 | .59 | .27 | .62 |
| 39 | .10 | -.05 | .10 | .64 | -.19 | .47 |
| 49 | .17 | .38 | .13 | .61 | .09 | .57 |
| 5 | -.04 | .02 | .15 | -.07 | .77 | .63 |
| 10 | .20 | .34 | .22 | .08 | .48 | .44 |
| 15 | .06 | .16 | -.01 | .04 | .57 | .35 |
| 25 | .35 | .18 | .29 | .04 | .49 | .54 |
| 30 | .20 | .32 | .42 | -.01 | .48 | .56 |
| 35 | -.15 | .39 | -.01 | .13 | .59 | .53 |
| 고유값 | 11.20 | 3.55 | 2.95 | 2.63 | 2.12 | |
| 분산 (%) | 6.13 | 5.22 | 4.03 | 3.33 | 3.12 | |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척도가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척도이다. 이에 축소된 문항으로 구성된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내었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2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이다. 각 요인별로 볼 때 공유시간 요인

은 .77이고, 선물요인은 .80, 인정하는 말 요인은 .75, 서비스 요인은 .58, 신체접촉은 .77이다. 문항수가 3개 밖에 안되어 계수가 다소 낮은 서비스 요인을 제외하고는 척도로써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표 3. 하위척도와 전체척도의 신뢰도 계수

| 요 인 | 문항수 | α 값 |
|--------|-----|------------|
| 공유시간 | 7 | .77 |
| 선 물 | 5 | .80 |
| 인정하는 말 | 6 | .75 |
| 서 비 스 | 3 | .58 |
| 신체접촉 | 6 | .77 |
| 전 체 | 27 | .89 |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최종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부분적으로 서비스요인을 제외하고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유용한 도구임이 밝혀졌다. 서비스요인의 경우는 몇 개의 문항을 더 보강하여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V. 요 약

부부 5가지 언어 척도를 5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문항들의 변별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각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이 어떻게 분류되며, 각 영역으로 묶여진 문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7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공유시간, 선물, 인정하는 말, 서비스, 신체접촉의 5가지 언어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서비스영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와 영역별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 좀더 정교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남편과 부인이 배우자의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

는 제 1의 언어를 파악하게 하여,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발견케하고 부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1. 고흥화, 김현수, 백영승 역(1989). Fred N.Kerlinger 저. 사회 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 성원사, 서울
2. 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1998). 가정관리학. pp.197-198, 학지사, 서울
3. Chapman, G.(1997). The Five Love Languages. 장동숙 역(1997). 생명의 말씀사, 서울
4. Cohen, T.F.(1993). Fathering and Providing. What Do Fathers Provide?. In J.C. Hood(ed.). Men, Work, and Family. p.17, Newbury Park, CA. Sage Pub.
5. Galvin, K.M., Brommel, B.J.(1988).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2nd). 이재연, 최영희 공역, 형설출판사, 서울
6. Gilbert, L.A.(1993). Two Careers/One Family - The Promise of Gender Equality. Sage Series on Close Relationships. pp.50, 65, 89, 91, Newbury Park, CA. Sage Pub.
7. Hill, M.S.(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427-451
8. Lewis, R.A.(1986). Introduction: What Men Get Out of Marriage and Parenthood. In R.A. Lewis, R.E.(Eds.).Men and Families. Beverly Hills, CA: Sage
9. Malcolm, A.H.(1991, June 16). A Day of Celebration for a more active kind of Dad. *The New York Times*, p.14
10. McGinnis, A.L.(1982). The Friendship Factor. The Romance Factor.
11. 지상우, 한정혜 공역(1994). 크리스찬 다이레스트, 서울
12. Norman Wright, H.(1983). More Communication Keys for Your Marriage. 차호원, 차혜숙 공역 (1985).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 두란노, 서울
13. Orthner, D.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91-102
14. Pleck, J.H.(1981). Men's Power with Women, Other Men, and Society: A Men's Movement Analysis. In R.A. Lewis(ed.), Men in Difficult Times: Masculinity Today and Tomorrow. pp.234-244, New York: Prentice-Hall.
15. Pleck, J.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 Beverly Hills, CA: Sage
16. Pleck, J.H.(1987).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M.S.Kimmel(ed.), Changing Men: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pp.83-97, Newbury Park, CA: Sage
17. Snyder, D.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Nov.)* 813-823
18. Tannen, D.(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